

#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相에 대한 비교연구

- 동사의 동작상과 동작성을 중심으로 -

열지바트\*

< 차례 >

1. 머리말
  2.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의 상 개념과 해석방법
  3.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작성에 의한 동작상 의미 분류
  4. 맺음말
- \* 참고문헌

## 1. 머리말

동사의 상적 의미(aspect meaning)는 용언의 의미에 따라 나타나는 동작성(aspectual character)<sup>1</sup>과 문법항목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상(Aspect)<sup>2</sup> 또한 어떠한 부사어를 동반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문장 차원에서의 상황상(situation aspect)<sup>3</sup> 등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동사의 상적 의미는 단어, 구, 문장의 차원을 걸친 의미적·형태적·통사적 복잡한 범주로서 각 차원에서의 결합 및 제약을 고려하여야만이 올바른 파악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언어에서의 상 범주는 그의 형성과 분류체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므로 한국어의 동사의 범주를 동일 계통어의 상 범주와 비교하여 각 언어의 상 분류체계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규명하는 일도 하나의 효율적인 연구방법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의 동작상과 동작성을 중심으로<sup>4</sup> 하여 양국어의 상 체계와 특징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며<sup>5</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의미론적 동작성에 대한 형태론적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동사의 의미 자질, 즉 동작성 분류에 의

\*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sup>1</sup> 본고에서는 동작성(Aspectual character)이 동사의 어휘상, 즉 용언의 어휘 의미에 의한 상적 특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것은 학자들 의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러 왔다. 고영근(2007:113)에서는 동작성의 개념과 同義한 의미로 동작류(aktionsar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Aktionsart’는 동사에 내재해 있는 어휘·의미론적 범주(고영근2007:113)라고 하였다. 반면, 노어의 상에 대한 연구에서 ‘Aktionsart’라는 개념은 어휘부에 속하는 범주가 아니라 문법적 범주로 형성되어 있다. Forsyth, J(1970:19, 30)에서 동작의 수행방식(aktionsart (procedural), способ действия)이라는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동사의 어휘·의미론적인 범주는 ‘상적 특성(verbalcharacter, характеры глагольного действия)’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동작성(Aspectual charact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up>2</sup> 동작상(Aspect)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고영근(2007)에서의 논의를 따랐다. 흔히 상(Aspect)이라는 용어는 문법 범주로서의 상과 의미 범주로서의 상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법 항목에 의한 것을 ‘동작상(Aspect)’이라 하고 용언의 어휘 의미에 의한 것을 ‘동작성(Aspectual character)’이라 하여 구분한다. Comrie, B(1976), 고영근(2007), 박덕유(1998, 2007), 김천학(2007)참조.

<sup>3</sup> 상황상(situation aspect)은 Smith(1991)에서 제안된 용어인데(이호승1997:1 간접인용) 한동완(1992)에서 이를 받아들여 ‘관점상’과 ‘상황상’이라고 부르고 이호승(1997)은 ‘관점상’과 ‘상황유형’이라고 부른다.

<sup>4</sup> 위에서 동사의 상 범주는 단어, 구, 문장의 범위를 걸친 범주이며 각 범위에서의 상호 결합과 제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동작류와 동작상만을 간추리기로 하고 상황상에 대한 연구는 차후 논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sup>5</sup>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하여 박덕유(2006a,b)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박덕유(2006a,b)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부류에 따른 어휘상과 통사구조의 문법상의 결합으로 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다만, 몽골어의 동사 부류 연구 미비와 필자의 몽골어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 제기에만 불구하였지만 한국어와 몽골어의 상 비교연구에서의 입문을 열어 주었다.

해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2부에서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의 상 개념과 해석방법에 대하여 정리할 것이며 양국 언어학자들의 상 해석방법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3부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작상과 동작성을 비교해서 관찰할 것이며 여기서는 동작성에 의한 형태론적 제약을 중심으로 하여 몽골어의 동작상의 의미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4부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고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2.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의 상 개념과 해석방법

상은 동사의 활용형에 기대되어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적 양태, 혹은 시간적 폭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보이는 형태·의미 범주이다. 상은 단순히 동사의 활용형에 의해 전개되는 동작의 양상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전체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動的 과정까지를 고찰하는 것이 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sup>6</sup>. 이 이유는 형태적 특성에 따른 문법적 범주만으로는 상을 이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상은 슬라브어에서 19세기부터 논의되어 온 동사의 문법 범주로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학자들마다의 상 해석방법의 이견과 대상 언어의 특성 때문이다. 슬라브어의 상 범주는 독일어를 비롯한 다른 여러 비슬라브어(Non-Slavonic languages)에도 적용·기술됨으로써 상이 개별 언어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언어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각 언어에서 동작상의 범주를 세우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sup>7</sup>

### 2.1. 한국어의 상 개념과 해석방법

한국어의 동작상의 연구는 일찍부터 최현배(1937/1961:444-445)에서 소개된 이래로 고영근(2007)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의를 진행되고 왔다<sup>8</sup>. 한국어 상 연구는 서구의 영향, 특히 Comrie, B(1976) 등 독일 학자들의 영향이 지대할 듯하다. 이 견해는 완료상과 비완료상에 각각 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양분 대립 또한 이항 대립의 접근법이다. 완료상과 비완료상의 대립을 이루는 기준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완료상은 한 동작을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반면 비완료상은 동작의 내부적인 구조(internal structure)에 초점을 두고 위상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살피는 데서 파악된다. 비완료상은 완료상과 대립되는 몇 가지의 범주를 포괄하며 이것은 진행상, 반복상 등이다(김천학2007:42). 한국어의 상은 상 표시 선어말어미 ‘-었-’과 보조용언으로 형성된다.

한국어의 상 해석방법은 ‘본용언+보조용언’의 문법적 구조형식에 상 자질에 따라 분류된 어휘적 의미를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을 고찰하기 위해 설정한 자질은 [±상태성], [±순간성], [±결과성], [±완성성] 등이 있다. 김천학(2007:38)에서 보조동사 결합에 의한 상 분류를 다음과 설정하였다.

상적 속성의 조합	상표지 결합	상적 의미	동사 부류	용례
-----------	--------	-------	-------	----

<sup>6</sup>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 자질에 따른 동사의 분류가 상적 의미에 절대적일 수 없다. 정희자(1994:88)에도 어휘의 의미 자질인 상적 특성들이 작용하지만 선행동사의 의미 자질이 상 표시 보조동사의 선택 제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상 표시 보조동사로 하여금 다른 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김천학(2006)에서 동사의 의미 자질 분류를 어휘·형태적 측면에서 설정한 바가 있으며 동작류 분류에 있어 새로운 견해로 여긴다.

<sup>7</sup> Comrie, B(1976) 및 Lyons(1979)에서 상이 일반 언어 이론의 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듯이, 상론자에 (aspectologists) 의해 상 범주가 슬라브어뿐만 아니라 비슬라브어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상은 형태론적 범주로 기술될 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범주 또는 의미론적 범주 그리고 화용론적 범주로도 처리되고 있다.

<sup>8</sup> 한국어의 동사의 상에 대한 연구사는 고영근(2007)에서 충분히 소개되었으므로 본고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순간성][+결과성]([-상태성])	‘-고 <sub>2</sub> 있-’	완료	B1類	알다, 믿다
	‘-어 있-’	완료	C1類	죽다, 비다
[+순간성][+결과성]( [+상태성])	‘-고 <sub>2</sub> 있-’	완료	B1類	바라다, 품다
[+순간성][-결과성]	‘-고 <sub>1</sub> 있-’	반복	A2類	기침하다
[-순간성][+결과성]	‘-고 <sub>1/고<sub>2</sub> 있-’</sub>	중의성	B2類	입다, 열다
	‘-고 <sub>1/어 있-’</sub>	진행/완료	C2類	숨다, 앉다
[-순간성][-결과성]([-완성성])	‘-고 <sub>1</sub> 있-’	진행	A1類	웃다, 놀다
[-순간성][-결과성]([+완성성])	‘-고 <sub>1</sub> 있-’	진행	A1類	만들다, 먹다

## 2.2. 몽골어의 상 개념과 해석방법

다음으로 몽골어의 상 분류체계와 해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몽골어의 상의 분류체계와 해석방법이 한국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몽골어의 상에 대한 연구는 Sanjeev G.D.(1963:65-79), Byambasan P.(1970:272-292, 1987:70-86), Shevernina Z.B(1977:254-260), Otgonsuren D.(1982:106-169), Onorbayan Ts.(2004:258-264), Purev-Ochir B.(1997:144)에서 목격된다. 위 연구들을 통해서 몽골의 언어 학자들은 상에 대한 이론을 구소련 언어학자들로부터 받아들여 노어의 상 분류체계를 현대몽골어에 적용·기술하려는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골어의 상 범주가 노어의 사 범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Luvsanvandan Sh.(1968)에서 몽골어에는 상 범주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몽골 언어학자들이 받아들인 상에 대한 견해는 Deshereva T.I.(1976), Kasevich V.B.(1977), Koshevaya G.I.(1976), Tsidipova Ts.J.(1972)에서 볼 수 있다.

Deshereva T.I.(1976:39)에 따르면<sup>9</sup> 상론자들은 ‘동작의 수행 방식(aktionsart, үйлийн арга)’<sup>10</sup>과 ‘동작 속성(verb character, үйлийн шинж чанар)’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비판하며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을 언어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한편, Kasevich V.B.(1977:77)에서는 동사의 상은 형태론적인 범주이며 ‘동작의 수행방식’은 단어형성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동작의 수행 방식’과 ‘동작 속성’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1</sup>.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상에 대한 이론은 노어, 즉, 슬라브어 동사의 상 체계에 대한 이론이며 Forsyth J.(1970:30)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의미 요소 Elements of meaning	Почитать	крикнуть	выпивать
1. 어휘적 (Lexical)	‘read’ (=читать)	‘shout’ (=кричать)	‘drink up’ (=выпивать)
2. 문법적: 동작류 (Grammatical : procedural)	지소성 (attenuative)	일회성 (semelfactive)	다회성 (iterative)
3. 문법적 : 상 (Grammatical : aspect)	완료상 (perfective)	완료상 (perfective)	비완료상 (imperfective)

<sup>9</sup> Deshereva T.I.(1976), Kasevich V.B.(1977), Koshevaya G.I.(1976)는 필자가 직접 못 봤으며 Byambasan P.(1987:71)에서 간접 인용하였다.

<sup>10</sup> Aktionsart에 대하여 1쪽 각주1 참조.

<sup>11</sup> 현대몽골어 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알려진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н байгуулалт –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тогтолцоо(현대몽골어 형태론 구조 – 몽골어의 동사 체계)』는 1987년에 간행되었으며 동사의 상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은 70년대의 구소련 언어학들의 이론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몽골에서는 동사의 상에 대하여 최신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한 업적이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 러시아에서 동사의 상 속성 분류(классификации характер глагольного действия)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Garbova E.V.(www.genling.nw.ru/Staff/Gorbova/Univ.doc)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 자료만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김성화(2003:30)에서 슬라브어 특히 노어의 상 범주를 비슬라브어에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비슬라브어에 상 범주가 부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어의 상 범주 특징인 전일성(全一性)<sup>12</sup>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해석<sup>13</sup>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의 상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몽골어 연구에서는 슬라브어의 상 범주를 몽골어의 특성에 맞게 적용·기술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은 하였지만 노어의 ‘동작 수행방식(aktionsart, үйлийн арга)’을 몽골어 상 범주의 도입할 시도를 하였다. Byambasan P.(1987:76, 85-86)에서 *-v, -lz; -ga, na; -m, -lz* 등의 형태소들 특징은 동사의 활용어미를 선행하며 용언의 어근에 직접 연결된 것을 고려하여 동사의 상 어미로 설정하였으며 *-tsgaa..., -chikh/-ch, -zna..., -skhii* 등 4가지 어미처럼 모든 동사와 연결되지 못하며 일부 동사에만 나타나는 점에서 접미사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 형태소들은 상 어미가 아니라 ‘동작 수행 방식’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Onorbayan Ts.(2004)에서 ‘동작 수행방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접미사들은 단어형성접미사로 보았다. 필자도 슬라브어의 ‘동작 수행방식(aktionsart, способ действия)’이 몽골어에서 부재적인 요소로 보고 상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증하여 몽골어의 상 분류체계와 해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몽골어 상은 2가지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 2.2.1. 형태론적 방법

동사의 어간에 상 어미가 붙어 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론적 구조이다.

#### 2.2.1.1. *-tsgaa*<sup>4</sup> 복수주체상(複數主體相)

몽골어의 복수주체상 어미에 관하여 Luvsanvandan Sh.(1968)에서는 용언파생접미사로, Byambasan P.(1987), Otgonsuren D.(1982), Onorbayan Ts.(2004), 박덕유(2007)에서 복수주체상 어미로 보았다. 이 어미는 여러 주체가 동시나 아니면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쓰인다.

(1) a. *Yu bolchikhov oo gej etseg ekh ni gaikhatsgaana.*

무슨 일이나고 부 모는 놀란다.

b. *Dund angiin suragch eregtei emegtei khoyor duu ni sertsgeelee.*

중학교의 학생인 남자 여자 2명의 동생은 깨어났다.

(1.a)에서의 ‘*-tsgaa*’는 여러 주체가 같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하며 (1.b)에서는 여러 주체의 같은 행동이 동시보다는 연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에 (1.b)에서 깨어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었으면 ‘*-tsgaa*’ 어미를 취하지 않아도 복수의 의미가 가능하다.

#### 2.2.1.2. *-chikh/-ch* 완료상(完了相)

완료상 어미 ‘*-chikh/-ch*’<sup>14</sup>에 관하여 Luvsanvandan Sh.(1968)에서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 파생접미사, Byambasan P.(1987), Otgonsuren D.(1982), Onorbayan Ts.(2004), 박덕유(2007)에서 완료상 어미로 각각 보았다. 행위의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완료의 의미를 갖는 ‘*-chikh*’는 현재시제 제약을 갖는다 Onorbayan Ts.(2004:261).

<sup>12</sup> 전일성(全一性)이라는 상성(аспектуальность, aspectuality)이 유무에 따라 상의 쌍이 대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성화(2003), Forsyth J(197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sup>13</sup> 슬라브어의 전통문법에서는 완료상(完了相)과 불완료상(不完了相)에 대해 각각 뚜렷한 상 의미를 부여한 양분 대립의 접근법(the dichotomous approaches)이 시도되었다.(김성화2003:10)

<sup>14</sup> ‘*-ch*’는 ‘*-chikh*’의 이형태이다. 통시적인 연구에서 ‘*-chikh*’ 어미는 연결어미 ‘*-j(-고)*’와 보조동사 ‘*orkhi(-버리다)*’의 합성형태로 알려져 있다. (*khelj.orkhi – khelchikh; yavj.orkhi – yavchikh*)

- (2) a. *Bi ene nomig unshsan.*  
내가 이 책을 읽었다.  
b. *Bi ene nomig unshchikhhsan.*  
내가 이 책을 읽었다.

Otgonsuren D.(1982)은 (2.a)에서 완료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반면 (2.b)에서는 ‘chikh’ 어미와 결합하면 완료의 의미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덕유(2007)은 강화차이지 두 문장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며 해당 어미는 완료상 이외에 화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a. *Odiid usand unaad ukhchikhhsen.*  
지금 물에 빠져서 (이미) 죽었다.  
b. *Khoyulaa jaakhan uuchikhhya.*  
둘이서 좀 먹자.(먹어 버리자. 무슨 상관이야.)  
d. *Za, ingeed garaad davkhichikhhya.*  
자, 이만 나가서 (빨리) 달리자.

위 예문에서 ‘chikh’ 어미가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의미로 쓰였다. (3.a)에서 ‘죽었다’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이미, 완전히’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3.b)에서 ‘끝까지 먹자’는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이라는 의미, 그리고 (3.c)에서 ‘달리다’는 용언의 의미에 ‘빨리, 어서’라는 화자의 태도를 추가한 양태 의미가 나타난다.

### 2.2.1.3. -zna 임시상(臨時相)

임시상 어미 ‘-zna’에 관하여 Luvsanvandan Sh.(1968), Sanjeev G.D.(1963), Byambasan P.(1987), Otgonsuren D.(1982), Onorbayan Ts.(2004), 박덕유(2007)에서 언급되었다.

- (4) a. *Ta endee suuznaj bai. Bi odookhon olood irye.*  
여기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제가 금방 찾아 올게요.  
b. *Khoyulaa yavznaj baival yasan yum be? Khoinoos khureed irne biz.*  
둘이서 (먼저 천천히) 가는 게 어떠냐? 뒤따라 올 것이다.

‘-zna’는 (4.a)처럼 임시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4.b)에서 비활성상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다음의 (5)와 같이 일부 동사에 제약을 갖는다.

- |                            |   |                        |
|----------------------------|---|------------------------|
| (5) <i>oguul-</i> (이야기하다)  | - | <i>*oguulzne-</i>      |
| <i>ukh-</i> (죽다)           | - | <i>*ukhzne-</i>        |
| <i>ald-</i> (읽다)           | - | <i>*aldzna -</i>       |
| <i>khashgir-</i> (소리를 지르다) | - | <i>*khashgirzna-</i>   |
| <i>sharkhad-</i> (부상을 입다)  | - | <i>*sharkhadzna-</i>   |
| <i>khur-</i> (도달하다)        | - | <i>*khurzne-</i>       |
| <i>ani-</i> (눈을 감다)        | - | <i>*anizna-</i>        |
| <i>bolgoomjil-</i> (주의하다)  | - | <i>*bolgoomjilzno-</i> |

### 2.2.1.4. -skhii 지소상(指小相)

‘-skhii’ 어미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간에 이견이 보인다. Luvsanvandan Sh.(1968)에서는 순간상(瞬間相), Byambasan P.(1987), Onorbayan Ts.(2004)에서는 활성상(活性相), Otgonsuren D.(1982), 박덕유(2007)에서는 비활성상(非活性相)으로 각각 보았다. 그만큼 나타내는 의미

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소상(指小相)으로 볼 것이다<sup>15</sup>.

- (6) a. *Bagshaas aisandaa khunii araar huugdaskhiiin baiv.*  
선생님을 무서워해서 사람 뒤로 (약간/조금) 숨어 있었다.  
b. *Yavskhiiikhgui bol guitsekhgui yum shig baina.*  
(조금 속도를 내어)가지 않으면 못 따라잡을 것 같다.

(6.a)는 동적의 비활성화의 의미로 쓰이는 데에 비해 (6.b)은 동작의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의미로 쓰였다.

- (7) a. *yavskhii*-(가다), *davkhiskhii*-(달리다), *guiskhii*-(뛰어가다), *shamdaskhii*-(노력하다)  
b. *\*unaskhii*-(타다), *\*zodoskhii*-(때리다), *\*alskhii*-(죽이다), *\*ukheskhii*-(죽다),  
*\*zalgiskhii*-(삼키다), *\*uuskhii*-(마시다), *\*ideskhii*-(먹다)

Otgonsuren D.(1982)은 ‘-skhii’의 동적성 제약에 대하여 (7.a)같은 상태 및 시간적으로 무한적인 용언들과 잘 어울리는 반면에 순간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7.b)과 같은 용언들과는 제약을 갖는다고 하였다.

#### 2.2.1.5. -l-, -ch 반복상(反復相)

반복상 ‘-l/-ch’에 관하여 Sanjeev G.D(1963), Luvsanvandan Sh.(1968), Byambasan P.(1987)에 서는 접사로, Otgonsuren D.(1982), 박덕유(2007)에서 반복상어미로 봤다.

- (8) a. *gishge*-(밟다(한번)) > *gishgel-*-(반복적으로) > *gishgech-*-(반복적으로),  
*nukh-*-(뺨다) > *nukhal-*-(반복적으로) > *nukhach-*-(반복적으로)  
b. *dargi-*-(끓다) > *dargil-*-(순간적으로 반복), *tsakhi-*-(번개 치다) > *tsakhil-*-(순간적으로 반복)

(8.a)에서는 ‘-l/-ch’어미가 결합되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8.b)에서 반복의 의미 이외에 순간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2.2.1. 통사론적 방법

통사론적인 방법에는 2가지의 복합구조로 양분되며 하나는 ‘본동사+보조동사’의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상을 나타내는 복합구조이다.

현대몽골어 동사의 시제와 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통사론적 방법이 중요하다. (Byambasan P.(1987:78)) 현대몽골어의 선행 연구에서 동사의 상 의미를 구명하는 통사론적 방법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보이지 않으며 아직까지 학자들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다.

##### 2.2.1.1. ‘본동사+보조동사’

현대몽골어에서 보조동사 기능으로 쓰여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음 (8)과 같다. (Onorbayan Ts.(2007:262))<sup>16</sup>

- (9) *bai*-(있다), *bol-*-(되다), *ekhle-*-(시작하다), *duus-*-(끝나다),  
*orkhi-*-(버리다), *suu-*-(앉다), *gar-*-(나가다)

<sup>15</sup> 상 범주에 있어서 지소성(指小性, Diminutives)의 용어는 감성화(2003)에서 인용하였다. 몽골어의 ‘-skhii’ 어미가 표현하는 의미는 어떤 동작의 활성화와 비활성에 대한 지소적(指小的) 정도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sup>16</sup> Sanjeev G.D.(1963)은 몽골어의 모든 동사가 보조동사와 결합하여 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본동사+av-(가지다), 받다/og-(주다)/ir-(오다)/orkhi-(버리다)/bai-(있다)’의 구조는 완료, ‘본동사+yav-(가다)/suu-(앉다)’의 구조는 비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봤다.

Onorbayan Ts.(2007:262-263)은 (9)의 예문을 들면서 이들 동사들은 상, 서법, 양태의 중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구별할 확실한 기준이 아직 없다고 하며 이들 중에서 *bai*-(있다), *bol*-(되다)은 시제와 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sup>17</sup>.

- (10) a. *Namaig ochikhod aav mini sumiin tov orokhoor yavchikh<sup>san</sup> bailaa.*  
 내가 갔었을 때 아버지가 읍내에 가러 가(떠나) 있었다.  
 b. *Tsetsgeetei uulzsanaas khoish ... bayartai yavakh bolloo.*  
 체즈게테를 만난 후 ... 기분 좋게 다니게 되었다.

한편, Byambasan P.(1987:82)은 (10.a)의 ‘-*san bai*-(동사+은/ㄴ 있다)’와 같은 ‘동사+과거시제관형형어미 *bai*-(있다)+시제종결어미’ 구조는 복합시제구조이며, (10.b)의 ‘-*kh bol*-(동사+을/ㄴ 되다)’의 ‘동사+과거시제관형형어미 *bol*+시제/인칭종결어미’ 구조는 복합시제 또는 서법의 의미를 나타냄으로 상 의미와 무관하며 복합시제구조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다만, ‘동사+과거시제관형형어미 *bai*-(있다)+명령형종결어미’ 구조가 미래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Byambasan P.(1987:82-83)에서 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1) a. 반복상: 동사+-*dag*(행위관형형어미)<sup>18</sup> *bai*-(있다)/*bol*-(되다)  
 b. 예정상: 동사+-*maar*(행위관형형어미) *bai*-(있다)/*bol*-(되다)  
 c. 미래진행상: 동사+-*san*(과거시제관형형어미) *bai*-(있다)+명령형종결어미  
 d. 진행상: 동사+-*saar*(종속연결어미) *bai*-(있다)/*bol*-(되다)  
 e. (결합의미에 따른)상: 본동사+-*j-ch*(대등연결어미) 보조동사  
 f. (결합의미에 따른)상: 본동사+-*aad*(종속연결어미) 보조동사

### 2.2.1.2. 반복적 복합구조

몽골어의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지속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선행동사가 연결어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2) a. *Kherkhen uchriig ni tailsniig bodood bodood olsongui.*  
 어떻게 원인을 찾았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해도 알아내지 못했다.  
 b. *Ishig, khurga, tuglaa khoogood khoogood avaad irlee.*  
 새끼염소, 새끼양, 송아지를 쫓고 쫓아서 몰아 왔다.

(12.a)에서는 ‘*bod*-(생각하다)’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태가 끊겨지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반면 (12.b)에서는 ‘*khoogood*-(쫓다)’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양, 염소를 따로 따로 쫓아 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몽골어의 상 분류체계와 해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해당 언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상 분류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문법상으로 상으로 보는 데는 일치하지만 동사의 어휘상까지를 포함시켜 그의 의미에 따른 동사 분류를 통하여 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 경우 동

<sup>17</sup> 몽골어의 보조동사 구조는 단순한 2개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구조 성분이 5~6개로 실현되어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i) *Unshaad baii baidag baisan baigaa.*(읽고 있곤 하고 있었었다)  
 ① ② ③ ④ ⑤

(i)는 [[[[①+②진행상]③반복상]④과거시제]⑤서법]의 구조를 갖고 있다.

<sup>18</sup> 몽골어의 관형형어미는 시제관형형어미와 행위관형형어미로 양분되며 시제관형형어미는 -*kh*(미래), -*san*(과거), -*aa*(현재), 행위관형형어미는 -*dag*(반복행위), -*gch*(수행), -*maar*(희망), -*khuits*(정도) 등이 있다.

사 자체의 어휘적 접근으로 동사의 상 자질을 설정하고 그 특성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여 통사적 구성인 ‘본동사+보조동사’의 적용으로 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몽골어에 경우 동사의 어휘상을 고려하지 않고 문법적 범주의 상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몽골어 선행연구에서는 상 해석방법에 있어 동사의 어휘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주하였지만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 부문에서 몽골어의 상을 해석하는 데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면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일 계통의 언어인 한국어의 상에 대한 해석방법과 비교하여 고찰할 것이다. 특히 양국어에서 상을 표현하는 데에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는 ‘본동사+보조동사’의 통사론적인 복합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어휘·형태적 제약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sup>19</sup>.

### 3.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작성에 의한 동작상 의미 분류

몽골어의 동사 상에 대한 연구에서 동사의 상적 속성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어휘상에 의한 동사분류에 따라 통사적 구조인 ‘어 있다’, ‘고 있다’ 등을 결합시킴으로써 나타내는 결과를 통해 상 체계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몽골어의 동사 상 체계분류에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동사의 동작성 분류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작성을 의한 동작상 기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동작성의 하위범주로 [순간성], [결과성], [상태성]의 상적 자질을 설정하고<sup>20</sup>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순간성]의 개념은 ‘시작점과 완성점의 사이에 시간 폭이 거의 없거나 극히 작은 것, 또한 상화의 전개에 소요되는 시간의 폭이 극히 적은 것’등으로 규정되며 [결과성]의 여부를 함의하느냐에 따라 동사의 분류가 결정된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옥태권(1988:43-46), 정희자(1994:49-51), 김천학(2007:26-27)은 [순간성]이 함의하는 [결과성]의 여부로 완료와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박덕유(2007:110-114)는 ‘-고<sub>1/2</sub> 있-’, ‘-어 있-’, ‘-곤 하’, ‘-려고 하-’ 등의 상 표지의 결합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먼저 [+순간성], [±결과성]의 조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3) a.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다.
- b.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있다.
- c. *Modnii mochir tsonkh tsokhij baina.*  
      나무 가지가 창문을 때리고 있다.
- d. *Modnii mochir tsonkh tsokhilj baina.*  
      나무 가지가 창문을 (반복적으로)때리고 있다.
- e. \**Modnii mochir tsonkh tsokhitsgooj baina.*
- f. *Dainii talbart olon tsereg ers ukhej baina.*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있다.
- g. *Dainii talbart olon tsereg ers ukhetsgeej baina.*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주체복수상)고 있다.

<sup>19</sup> 김천학(2006)은 한국어의 동작류 분류에 대한 논의에서 어휘·형태적 제약을 중심으로 삼았다.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한 어휘·의미론적 접근보다 형태적 제약을 기준으로 한 어휘·형태론적 방법이 동작류를 분류하는 데에 더 정확하다고 봤다.

<sup>20</sup> 동사는 하나의 상적 속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순간성]과 [결과성]의 상적 속성을 조합되어 구성된다. 상적 속성 체계에 대하여 김천학(2007:36-38)을 참조하였다. 유타니(1978)에서는 [상태성][순간성][결과성]을 동작성 자질로 삼았다.



(13.a.b)는 김천학(2007:103)에서 나오는 예문이다. (13.a)는 일점적[+순간성] 동사이고 (13.b)는 달성적[순간성] 동사이다. 둘 다 ‘-고 있-’과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몽골어에 경우 좀 다르다. (13.a)과 비슷한 문장 (13.c)의 경우 ‘반복’의 의미를 지니지만 (13.d)는 ‘주체복수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13.e)처럼 주체복수상 어미 ‘-tsgaa’와 제약을 갖는다. 그러나 (13.f)에서는 (13.b)처럼 ‘반복’의 의미를 지니지만 (13.g)에서 주체복수상어미 ‘-tsgaa’를 취함으로써 여러 주체의 같은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 (14) a.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이 죽어 있다.  
 b. *Dainii talbart olon tsereg ers ukheed baina.*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이 죽어 있다.  
 c. \**Dainii talbart olon tsereg ers ukhetsgeegeed baina.*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이 죽어(주체복수상) 있다.  
 d. *Modnii mochir tsonkh tsokhi<sub>1</sub>od baina.*  
 나무 가지가 창문을 때리고 있다.  
 f. \**Modnii mochir tsonkh tsokhi<sub>2</sub>od baina.*  
 나무 가지가 창문을 때려 있다.

(14.a)는 김천학(2007:122)에서 나오는 예문이다. [+순간성][+결과성]의 속성을 갖는 동사가 ‘-어 있-’과 결합하여 ‘완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몽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14.b)처럼 ‘-aad bai-’ 복합구조와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는 표현한다. 그러나 (14.c)에서 ‘-tsgaa’가 제약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sgaa’는 주체복수상 의미 이외에 연속적인 진행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14.d.f)에서 우리는 ‘-aad bai-’ 복합구조는 2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반복의 의미로 쓰이는 ‘-aad<sub>1</sub> bai-’과 완료의 의미로 쓰이는 ‘-aad<sub>2</sub> bai-’이다. (14.d)는 진행의 의미인 ‘-aad<sub>1</sub> bai-’이고 (14.f)는 완료의 의미인 ‘-aad<sub>2</sub> bai-’이다.

동사는 어떤 행위나 사건의 동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알다, 믿다, 모자라다, 느끼다’ 등의 동사들은 [상태성]을 지닌 동사들이다<sup>21</sup>.

- (15) a. 국민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b. *Ard tumen dain dajin khurdan duusakhiig khusch baina.*  
 국민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c. *Bi ene tukhai sain medej baina.*  
 내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5.a)는 김천학(2007:107)에 나오는 예문이다. [+상태성][+순간성][+결과성]의 속성을 지닌 ‘바라다’ ‘-고 있-’이 결합하여 ‘완료’의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몽골어의 ‘khus-’ (바라다) ‘med-’ (알다)의 경우 ‘-j bai-’와 결합하여 ‘진행’의 상대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완료의 의미 ‘-aad<sub>2</sub> bai-’ 결합하지 못한다. 이것은 ‘khus-’, ‘med-’는 [-결과성]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순간성], [±결과성]의 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6) a. 철수가 교복을 입고 있다.

<sup>21</sup> 한국어의 경우 형용사가 동사와 함께 용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상태성] 동사로 형용사를 제시한 바가 많았다. 그러나 몽골어의 경우 형용사는 명사류에 분류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상태성] 동사로 분류 기준을 ‘도달점’이 파악하지 않는 동사들을 포함시켰다.

- b. *Bi khuvtssaa omsoj baina.*  
나는 옷을 입고(진행) 있다.
- c. *Bi khuvtssaa omsood<sub>2</sub> baina.*  
나는 옷을 입고(완료) 있다.
- d. *\*Bi khuvtssaa omschikhoj baina.*  
나는 옷을 입(완료)고(진행) 있다.

(16.a)는 김천학(2007:111)에서 들은 예이다. ‘입다’ 동사는 [-순간성][+결과성]의 속성을 지니며 ‘-고<sub>1</sub> 있다.’과 결합하여 ‘진행’을 나타내고 ‘-고<sub>2</sub> 있.’과 결합하여 ‘완료’를 나타낸다. 몽골어의 경우 (16.a)처럼 진행의 의미 ‘-j bai-’, (16.b)에서의 완료의 의미 ‘-aad<sub>2</sub> bai-’와 결합이 가능하다. (16.d)에서 진행의 의미를 갖는 ‘-j bai-’와 같이 쓰이는 경우 ‘완료상’ 어미 ‘-chikh’는 제약을 갖는다.

- (17) a. *Bi khuvtssaa omschikhson baina.*  
나는 옷을 입고(완료) 있다.
- b. *Bi khuvtssaa omschikhood baina.*  
나는 옷을 입(완료)고 있다.

(17.a)처럼 완료상어미 ‘-chikh’의 결합은 ‘-san(과거관형형어미) bai-’ 복합구조에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상의 의미보다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의미로 쓰였다. (17.b)에서도 완료보다 ‘강조’의 의미로 (3.a)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 (18) a. *Tsonkhoo jaakhan ongoilgoznoj baikh uu?*  
창문을 약간 열고(잠시) 있을까요?
- b. *Onoodortoo eniig omsoznoj bai.*  
오늘은 이 옷을 입고(임시로) 있어라.

(18.a.b)에서는 [-순간성], [+결과성]의 속성을 갖는 동사들은 ‘임시상’ 어미 ‘-zna’와 결합이 자연스럽다.

다음 예는 [-순간성], [-결과성]의 속성을 갖는 동사의 예이다.

- (19) a. 학생들이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 b. *Oyutnuud damjaand angli khelnii khicheel khiij baina.*  
학생들이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 c. *Aav sumiin tov orokhoor yavaad baina.*  
아버지가 읍내에 가러 가 있다.

(19.a)는 김천학(2007:100)에서 나온 예문이며 ‘공부하다’에 ‘-고 있-’을 결합한 것으로 ‘진행’을 나타낸다. (19.b)는 한국어의 예문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19.c)의 경우 ‘반복’의 의미로 해석된다. ‘가다’는 [-순간성], [-결과성]의 속성을 가지는 동사로 ‘-aad<sub>1</sub> bai-’와 결합하면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순간성], [-결과성]의 속성을 갖는 동사들은 임시상 ‘-zna’, 지소상 ‘-skhii’와 결합이 자연스러우며 완료상 ‘-chikh’의 경우 (9.a)에서 본 바와 같이 ‘-san(과거관형형어미) bai-’ 복합구조에만 가능하다.

위에서 우리가 [순간성][결과성][상태성]의 속성을 지니는 동사가 어떤 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적 속성 조합	상표지 결합	상적 의미	
		한국어	몽골어

[+순간성][-결과성]	-고 있-	반복	
	-j bai-		반복
	-l+-j bai-		주체복수
	-aad <sub>1</sub> bai-		반복
[+순간성][+결과성][-상태성]	-어 있-	완료	
	-고 있-	반복	
	-aad <sub>2</sub> bai-		완료
	-j bai-		반복
	-tsgaa+j bai-		연속
[+순간성][+결과성][+상태성]	-고 있-	완료	
[+순간성][-결과성][+상태성]	-j bai-		진행
[-순간성][+결과성]	-고 <sub>1</sub> 있-	진행	
	-고 <sub>2</sub> 있-	완료	
	-j bai-		진행
	-aad <sub>2</sub> bai-		완료
[-순간성][-결과성]	-고 <sub>1</sub> 있-	진행	
	-j bai-		진행
	-aad <sub>1</sub> bai-		반복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의 동작상과 동작성을 중심으로 하여 양국어의 상체계와 특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어의 상적 의미 분류보다 몽골어의 의미 분류가 더 복잡하며, 또한 상어미에 대한 형태론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동적성에 의한 동사적 의미 분류를 위해 한국어의 ‘-고 있-’, ‘-어 있-’, 몽골어의 ‘-j bai-’, ‘-aad<sub>1</sub> bai-’만을 표지로 삼았다. 이 구조는 동작성의 상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에 의한 타당성 때문이다. 한편, 이런 구조만의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한국어의 상처림 몽고어의 통사적 복합구조에 의한 상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yavaad bai-’ 구조의 ‘-aad bai-’는 완료와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주체복수상’ 어미 제약을 갖는다. ‘주체복수상’ 어미는 ‘-j bai-’의 구조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연속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완료상 어미 ‘-chikh’ 경우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에서 제약을 받는 동시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임시상, 지소상의 어미에 경우 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되지 않지만 복합구조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갖는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몽골어의 동사에 특징에 맞는 동사자질을 설정하고 동사 부류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동작성의 동작상의 관계, 또한 동작성과 상황유형간의 관계를 살펴 볼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영근(2006),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_\_\_\_\_(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김성화(2003),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김천학(2006),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 『국어교육』 120.  
 \_\_\_\_\_(2007),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남기심,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박덕유(1998), 『國語의 動作相 研究』, 한국문화사.  
 \_\_\_\_\_(2006a),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_\_\_\_\_(2006b),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상(相) 대립의 통사론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pp. 191-225, 이중언어학회.  
 \_\_\_\_\_(2007), 『한국어의 相 이해』, 제이앤씨.  
 이호승(1997), 「현대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국어연구』 169.  
 우창현(2003), 「문장 차원에서의 상 해석과 상 해석 규칙」, 『국어학』 41.  
 한동완(1999), ‘-고 있-’ 구성의 중의성에 대하여, 『한국의 의미학』 5  
 황병순(1986), 「현대국어 동사의 상 연구」, 『배달말』 11.

Comrie, B.(1976), Aspec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덕유, 이철수 번역)

Forsyth, J.(1970), A Grammar of Aspect, Cambridge Universith Press.

Бямбасан.П.(1970),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хэв байдал. “Хэл зохиол судлал” Том VIII Fasc 1-12. УБ.

Бямбасан.П.(1987),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н байгуулалт, УБ.

Лувсанвандан Ш.(1969), Хэлний нөхөх, үл нөхөх байрлалын тухай асуудалд “Монголын судлал” Том VII, УБ.

Санжеев Г.Д.(1963),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тогтолцоо,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 хэлбичгийн эрдэмтний анхдугаар их хурал” 2 дугаар дэвтэр, УБ.

Отгонсүрэн Д.(1982),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хэв, байдлын дагаврын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УБ.

Өнөрбаян Ц.(2007),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Б.

Пүрэв-Очир Б.(1997),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 зүй, УБ.

Шеввернина З.В.(1977), К проблеме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в монгольском языке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III их хурал” II боть, УБ.